

젊은 리더를 양성하는

10가지 방법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각자의 영향력이 있는 영역에서 좋은 리더가 되도록 부르시며, 리더 양성은 제자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교회 공동체에 깊이 뿌리내리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그들 안에 잠재된 리더십 은사를 발견하게 하고, 실제로 그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젊은 리더들을 발견하고, 격려하며, 그들이 사역할 자리를 마련하는 10가지 방법입니다.

1. 어릴 때부터 시작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지나면서 리더십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이러한 변화가 더 이른 시기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미국 걸스카우트 보고서에 따르면, 여아들은 6세 무렵부터 자신이 남아나 남성만큼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며, 9세에 자신감이 가장 높아졌다가 6학년쯤에는 리더가 될 것인지 아니면 주변의 호감을 살 것인지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긍정적인 리더십 모델과 행동을 인식하도록 돕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2. 젊은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존중하고, 공감하며, 경청해 주세요! 교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젊은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기회를 마련해 보세요. 또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투명하게 공유하여, 젊은이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지지를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직면한 중요한 주제나 결정, 어려움에 대해 다양한 세대가 서로의 관점을 나누고 경청할 수 있는 세대 간 ‘듣고 배우는’ 자리를 마련해 보세요. 모든 연령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교회 생활의 모든 영역에 젊은이들을 초대하세요.

나이에 따라 역할을 나누기보다는, 모든 세대가 함께 섬기고 사역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세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교회의 삶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 활동의 다양한 영역에 '참여의 사다리' 개념을 적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경험 많은 리더들이 성령께서 자신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주세요. 젊은 리더들이 충분한 지지는 받되, 지나친 간섭 없이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리더십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4. 젊은 세대가 리더십 은사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세요.

젊은이들이 자신의 영적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해주세요.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혁명', 'MBTI', 'DISC'와 같은 성격 및 강점 진단 도구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통해 젊은이들이 주신 소명에 집중하고,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리더십 팀을 구성하거나 훈련할 때는 은사와 성격 유형, 리더십 스타일, 전문성, 삶의 경험 등 다양한 배경과 특성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주신 다양한 은사를 함께 기뻐하고 인정해주세요. 누가 리더로 적합한지 미리 단정짓지 말고, 질문하고 토론하며 충분히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입교 교육을 준비할 때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교회의 삶에 어떻게 신실하게 참여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세요.

5. 젊은 리더들의 은사를 예배에서 나누고 격려하세요.

예배를 '공연'이 아닌 '인도'로 바라보는 비전을 제시하고, 각자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세요. 청소년과 청년들이 단지 음악뿐 아니라 예배의 모든 영역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세요. 상상해 보세요. 젊은 세대가 설교, 예배 기획, 설교 주제 선정, 시각 예술, 또는 예배 지원팀 등에서 멘토링을 받는다면, 얼마나 더 풍성하고 살아 있는 예배가 될까요?

6. 젊은 리더십 역할 목록을 만드세요.

교회 안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맡을 수 있는 다양한 리더십 역할을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리더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훈련 내용도 함께 준비해 보세요. 젊은 세대가 교회의 다양한 사역과 봉사, 리더십 활동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리더십·봉사·사역 탐색의 날'을 열어 보세요. 또한 사역 리더들을 따라다니며 배우는 '쉐도잉(shadowing)' 활동도 적극 권장해 주세요.

7. 리더십 구성 시 젊은 세대 비율 목표를 설정하세요.

모든 사역팀과 카운실을 포함한 교회 리더십 구성원 중 25세 미만이 25% 또는 30세 미만이 30%가 되도록 목표를 세워보세요. 숙련된 리더들이 자신들과 같은 세대를 넘어 새로운 리더를 발굴하기 위해 더 넓은 시야를 갖도록 격려해 주세요. 새로운 젊은 리더를 찾을 때는 성별과 민족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이러한 다양성이 실제로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주세요. '리더십 목자'를 세우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8. 멘토링 및 코칭 문화 정착에 힘쓰세요.

젊은 리더 양성은 많은 교회에서 기존 문화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리더십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숙련된 리더들이 먼저 코칭을 받거나 다른 사람을 코칭하는 모습을 솔선수범하도록 격려해 주세요. 이러한 관계를 통해 사역의 비전을 공유하고, 교회 안에 배움의 문화를 형성해 보세요. 다양한 관계적·학습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역멘토링(reverse mentoring), 또래 멘토링, 소그룹 모임 등 여러 코칭 및 멘토링 모델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9. 리더십 훈련을 제공하세요.

리더십 훈련이 교회의 가치, 신학, 문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모든 부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리더십 개발의 핵심인 경험 중심 학습을 적극 활용하고, 젊은 리더들이 리더십 역량을 더욱 깊이 있게 키워갈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임도 마련해 주세요. 또한 전인적인 리더십 성장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인격, 역량, 경건한 자신감, 겸손, 권위, 영향력, 청지기 정신 등 다양한 주제들을 함께 나누고 토론해 보세요.

10.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세요.

젊은 리더십 문화를 키우는 일은 단순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진 실천들을 시도해 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영향과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회 문화가 변화해 가는 가운데, 젊은 리더십이 세워져 가는 이야기를 공동체 안에서 기쁨으로 나눠 보세요.

이 자료는 Thrive 교회사역부에서 제작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사역 지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thrive@crcna.org로 연락 주세요.

810732

